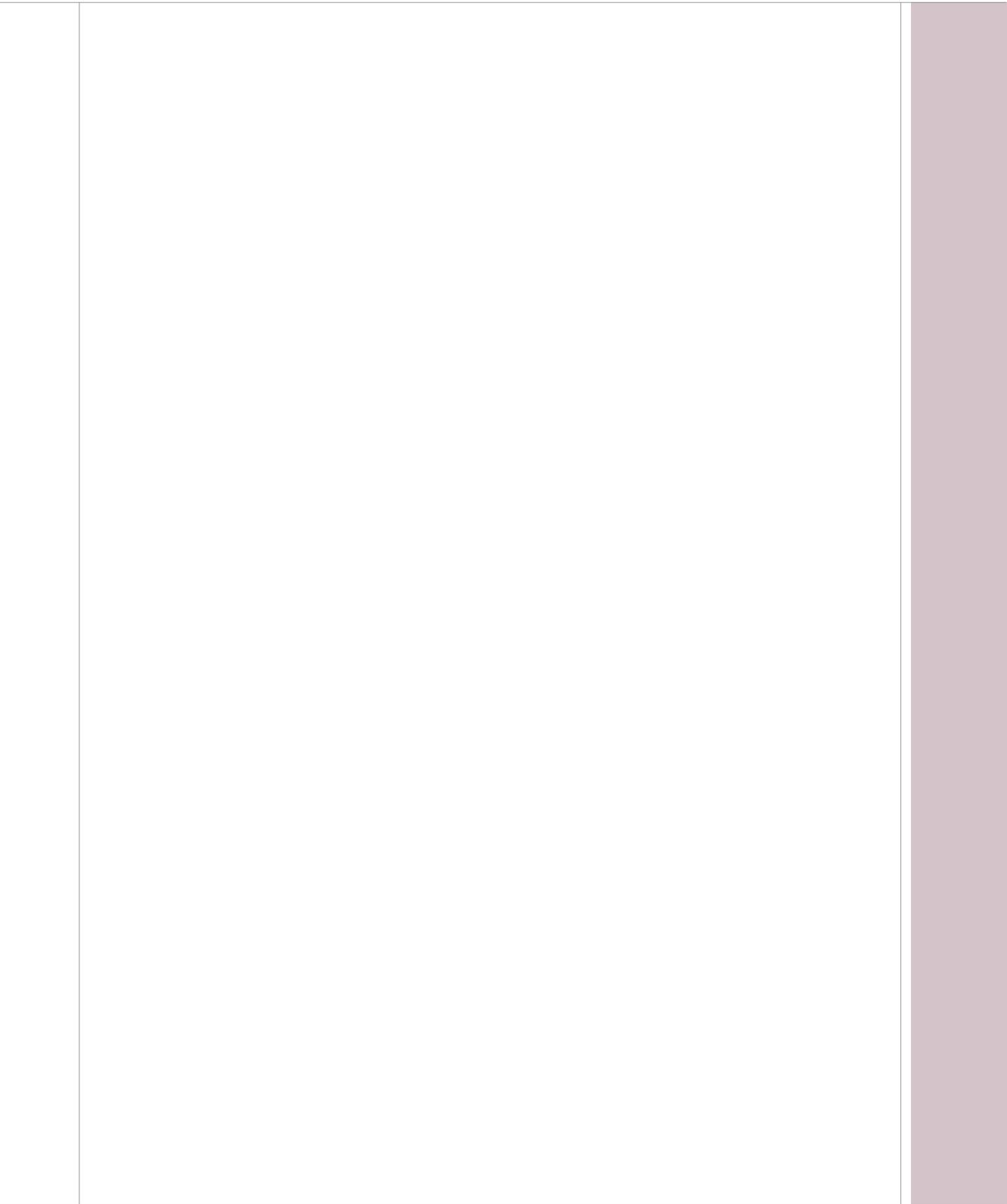


민족대축전



제4장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 제1절 남북공동행사
- 제2절 문화예술 교류
- 제3절 역사·학술 교류
- 제4절 체육교류
- 제5절 종교교류
- 제6절 지방자치단체 교류



제4장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높여주고, 나아가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된 사회문화교류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사회문화분야 남북왕래 인원

(단위: 명)

구분	분야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방북	교육학술	19	21	1	76	76	68	360	797	273	273	827	2,783
	문화예술	17	87	92	25	134	513	34	784	286	138	271	2,395
	체육	187	0	163	446	310	326	1,190	5	799	266	1,198	4,890
	종교	9	-	39	47	86	165	584	376	1,231	788	4,899	8,275
	언론출판	11	48	14	143	82	84	253	107	1,122	487	289	2,630
	과학기술	12	31	16	8	13	37	51	121	0	43	135	345
	기타	446	1	1	476	2,215	1,308	923	1,367	7,066	2,266	4,720	20,789
방북 소계		701	239	330	1,150	2,916	2,501	3,395	3,557	10,777	4,324	12,217	42,107

구분	분야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방남	교육·학술							18	41		21	19	99
	문화예술	33			336				141			30	540
	체육	148		62		1	765	717		78	4	213	1,988
	종교												0
	언론·출판									60			60
	과학기술												0
	기타	353			68	31	172	206	98	537	268	221	1,954
방남 소계	534	0	62	404	32	937	941	280	675	293	483	4,641	
합계	1,235	239	392	1,554	2,948	3,438	4,336	3,837	11,452	4,617	12,700	46,748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단위: 건)

연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협력사업	2	1	5	5	5	6	7	13	16	47	26	20	153
협력사업자	2	1	7	7	8	4	5	12	14	47	25	19	151

2007년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인적왕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한 해 동안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북왕래인원은 498건 12,700명으로 2006년(333건, 4,617명)과 비교할 때 왕래인원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교·체육·학술분야의 교류가 두드러졌다.

남북 인적교류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온 남북공동행사는 2007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6월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귀빈석(주석단) 배치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다가 마지막 날에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이 불참의사를 통보해옴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나 「6.15민족공동위원회」 산하의 노동·농민·학술·언론·교육 등 직능별 공동행사는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 신규 승인건수는 20건으로 2006년(26건)에 비

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와 봉수교회 복원·재건사업,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사업 등 중장기 사업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남북언어 통합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공포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07년에 네 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열렸다.

종교분야 교류에서는 기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각 종단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꾸준히 전개된 가운데, 남북 종교인간의 개별접촉을 넘어 연합기구간 연대를 모색하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조선종교인협의회간 종교교류 1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 완료되었고,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도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2008년 상반기 중에 헌당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2005년 10월 복원된 개성 영통사에서는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지순례가 실시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청소년축구팀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제주·광양 등지에서 장기 전지훈련을 가졌고, 이어 유소년 축구팀이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을 오가며 교환경기를 가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교류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총리회담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2007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명·사업내용 (→변경내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충북 제천시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	삼일포농장 관리사 전력시설 설치, 사과축제행사 등 문화교류협력, 신계사관광, 농장 운영 등	'04.3.24 ('04.3.24)~('07.9.12)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6.15북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위원장 회의 (남, 북, 해외 참가) 개최	'05.12.8 ('07.3.2)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성헌)	민족화해협의회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 협력사업	'06.2.22 ('07.1.1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개성역사유적 보수관리를 위한 물자 지원 추가 →사업기간을 '06.9.2까지에서 '07.7.13까지로 연장	'06.6.20 ('06.6.20) →('06.7.6) → '07.5.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문화보존지도국 등	고구려 벽화무덤 남북공동 보존사업	'06.4.3 ('07.5.25)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삼천리 총회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① 3D그래픽 전문가 교육(6개월, 30명) ② 임베디드 전문가 교육(3개월, 30명)	'07.2.9 ('07.2.9)
(주)통일뉴스 (대표이사 이계환)	조선6.15편집사	남북이 각각 상대측 제공용으로 제작한 기사,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이메일로 교환, 홈페이지에 게재	'07.3.16 ('07.3.16)
(주)PMGnetworks (대표 신주선)	재일본조선인연 합회 「금강산가 극단」	① 금강산가극단공연 “장새남과 함께하 는 민족배합 관현악의 밤”	'07.4.3 ('07.4.3)
		② 금강산가극단 음반 제작	'07.4.3 ('07.4.3)
민족21 (대표 안영민)	민족화해협의회	6.15 7돌 기념 평양-남포 자전거 평화행진	'07.4.5 ('07.4.5)
(재)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 화해협의회 (대표자 정진석)	조선가톨릭교협 회 중앙위원회	평양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 지원	'07.4.6 ('07.4.6)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내각산하 저작권 사무국	음반 제작사업	'07.5.4 ('07.5.4)
(사)남북체육교류협회 (대표 김경성)	4.25체육단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07.5.23 ('07.5.23)
▲(사)한국풍력에너지학회 (대표 손충렬)	삼천리총회사	북한지역 풍력자원 공동조사	'07.5.29
▲(사)한국항공스포츠협회 (회장 오세훈)	민족화해협의회	남북종단 비행 (평양-서울)	'07.6.1
(사)평화3000 (대표 신명자)	평양시체육단· 조선가톨릭협회	남북축구단 친선경기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포함	'07.6.22 ('07.6.22)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명·사업내용 (→변경내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PMGnetworks (대표 신주선)	재일본조선인연 합회 「금강산가 극단」	「금강산가극단」 무용단,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서울 공연 →5개작품 삭제, 3개작품 추가, 공연횟수 증가, 영상물제작 추가	’07.7.10 (’07.7.10) →(’07.9.28)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만)	민족화해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대복지원	’07.9.11 (’07.9.11)
남북체육교류협회 (대표 김경성)	4.25체육단	태국 차이퐁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10.20~27)	’07.9.27 (’07.9.27)
(사)한국권투위원회 (대표 박상권)	조선프로권투협회	제6차 남북프로권투대회 (개성) 개최	’07.10.5 (’07.10.5)
(재)순복음선교회 (대표자 조용기)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	’07.11.5 (’07.11.5)
안성시(시장 이동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병모)	민족화해협의회	전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북한측 지역 공연	’07.11.7 (’07.11.7)
▲(주)PMGnetworks (대표 장현석)	조선국립민족 예술단·조선미술 박물관	민족가극 「춘향전」 내한공연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 남한지역 전시회 및 조선미술박물관 현대화 사업	’07.11.2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07.12.3 (’07.12.3)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회장 염무웅)	6.15민족문학인 북측협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	’07.12.31 (’07.12.31)

주1) ▲는 협력사업자 승인만 받고 협력사업 승인은 받지 못한 단체

주2) →는 기 승인된 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경우(내용 및 일자)

제1절 남북공동행사

1. 6.15 공동행사

2007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남한 백낙청 대표 등 57명, 북한 안경호 위원장 등 20명, 해외 문동환·곽동의 공동위원장 등 22명, 총 99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 결

과 ①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행사는 남한에서 개최하고, 과거보다 더욱 폭넓고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한다. ② 부문별·계층별 통일행사도 향후 합의되는 장소에서 반드시 진행한다. ③ 6월 15일을 「민족공동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④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해 「6.15민족공동위원회」 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⑤ 「6.15민족공동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6.15민족통일대축전」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남한 284명, 북한 300명, 해외 132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남한대표단 중에는 국회의원 10명과 취재기자단 12명이 포함되었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개막식과 만수대예술단 공연 관람 및 환영만찬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5일 본행사인 「민족단합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경 평양 태권도전장에서 남·북·해외 대표단과 평양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007년 3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후속 협의를 통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월 4일 이 행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인사배제·반북 시위방지·해외

남북공동행사 개최 현황 및 참가 인원

연도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2001	금강산 (6.15~16) - 남 450, 북 200, 해외 20	평양 (8.15~21) - 남 337, 북 223
2002	금강산 (6.13~16) - 남 217, 북 350	서울 (8.14~17) - 남 530, 북 116
2003	싸스(SARS)로 인해 미개최	평양 (8.14~17) - 남 339, 북 400
2004	인천 (6.14~17) - 남 1,200, 북 126, 해외 39	조문파동, 이적단체 소속원 참가보장 요구로 무산 (평양 예정)
2005	평양 (6.14~17) - 남 300, 북 200, 해외 100	서울 (8.14~17) - 남 400, 북 200, 해외 150
2006	광주 (6.14~17) - 남 483, 북 147, 해외 145	수해로 미개최 (평양 예정)
2007	평양 (6.14~17) - 남 284, 북 300, 해외 132	을지훈련 등 사유로 북한이 불참통보(부산 예정)

동포들의 입국편의 등에 대해 남한정부가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과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로써 2001년 8.15공동행사가 시작된 이래 2004년 조문과동, 2006년 수해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세 번째로 8.15 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2. 직능별 공동행사

2007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의 노동·청년학생·농민·교육·학술·언론·여성 등 7개 직능 분과별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남북 분과별 연대모임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남북공동행사 이외에 직능분과별 교류도 정례화의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7개 분과의 공동행사 중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는 노동부문의 5.1절 행사 하나로 그쳤고, 나머지 행사들은 모두 북한에서 개최됨으로써 쌍방향 교류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였다.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는 2007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용득 한국노동총위원장 및 이석행 민주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경남 창원)

노총 위원장 등 300명, 북한측에서는 원형국 직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6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기간 중 본행사인 노동자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남북노동자 상봉모임 및 통일축구대회, 마산 3.15묘역 참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남한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로서 쌍방 간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청년학생부문에서는 2005년에 두 차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데 이어, 2006년 5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2007년에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한측 140명, 북한측 70명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을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토론회, 공동 등반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농민부문에서는 2001년과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를 개최한 이후, 2007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농민연대모임」을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남한측 93명, 북한측 500명이 참가하여, 남북농민연대모임 및 만경대협동농장 방문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남한측 참가단은 전국 11개 농민단체를 망라하여 구성됨으로써 이전의 행사보다 대표성이 격상되었다. 또 12월 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 30여 만평에서 직접 생산한 ‘통일쌀’ 297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여성부문에서는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위안부 문제 협의와 더불어 남한의 「한국여



통일쌀 인도인수식 (개성)



남북학술토론회 (금강산)

성지도자연합), 「6.15 여성본부」 등이 북한 「조선여성협회」 등과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6년에 개최된 6.15공동위 여성분과의 「남북여성대표자 회의」에 이어, 2007년에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여성대표자모임」을 진행하여 여성교류의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2007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북한 대표단 5명이 참가하여,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일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남북공동수업」이 2007년에도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6.15 공동선언」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2007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평양·백두산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남한에서 교육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교육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고 북한 교육시설을 참관하였다. 이 모임은 2003년에 개최된 「남북 교직원 상봉모임」을 발전시킨 것이다.

학술부문에서는 1995년 이래 한국통일포럼, 한국정치학회 등의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남북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6.15공동위 학술분과의 「남북학술토론회」로 이어졌다. 남북학자 36명은 12월 8일 금

강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학자들의 역할’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 교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언론부문은 2006년 11월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토론회」 를 진행한 데 이어, 2007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6.15 남측위 언론분과 21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6.15 북측위 언론분과측과 남북 언론교류와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7년 12월 26일에는 인터넷사이트 ‘통일언론’ 을 개통하였다.

제2절 문화예술 교류

2007년 문화예술분야 교류는 통일음반 제작, 제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금강산가극단」 음반 제작 및 방한 공연, 전통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의 북한 공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방송·언론분야에서는 남한의 기자 및 제작진들의 방북 취재가 주를 이루었고, 북한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도 이루어졌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의 생활가요 10곡을 남한의 유명가수들이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 ‘조선무용50년-북녘의 명무’

녹음하여 제작한 통일음반 「동인」을 발매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는 동포애, 애향심, 남녀간의 사랑 등 서정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북한의 생활가요로서 북한과 직접 저작권 계약을 통해 소개된 첫 사례이다.

(주)PMG networks가 추진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금강산가극단」 방한 공연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서 단순 일회성 교류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남북문화예술 교류로 발전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0년, 2002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금강산가극단」의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북녘의 명무’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공연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되었다.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은 1955년 재일동포 2, 3세들로 구성된 해외 예술단으로 북한의 미학사상과 독창적인 무용예술 방침을 기반으로 독특한 색채의 무용 작품들을 창작하고 보존·계승하고 있는 전문 무용단체이다.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이 단독으로 북한 무용의 대표작들을 남한에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PMG networks는 협력사업으로 북한의 개량악기 장세남 독주곡집 ‘열풍’, 조선민족기악곡집 ‘소통’, 북녘 서정가요 독창곡집 ‘봄’, 고음저대 독주곡집 ‘금강산녀’ 등 금강산가극단 음반시리즈 4종을 음반으로 제작, 발매하였다.



전통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공연 (황해도 정방산)

경기도 안성시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안성남사당」의 북한 공연을 추진하여 2007년 11월 21일 황해도 정방산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남사당놀이는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된 남한의 대표적 전통공연예술로서, 북한 지역에서 공연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의 전통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 공연은 서울-평양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황해도 정방산이라는 지방에서 진행되어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공연을 계기로 안성시·(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한은 남한에서 매년 개최되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 또는 2012년 안성에서 열리는 「세계민속축전」에 북한의 농악무 공연단이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방송분야에서는 남북합작드라마의 방영이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KBS와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첫번째 남북합작드라마인 「사육신」(24부작)을 공동으로 제작해왔다. 「사육신」은 KBS가 방송장비와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극본, 출연 배우, 스태프 등 제작 전반을 맡아 만들어졌으며,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KBS 수목드라마로 방영되었다. 「사육신」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짧은 기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송분야에서 장기간 교류로 추진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남북 드라마 공동제작, 공동연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통일뉴스와 월간 민족21은 공동으로 기사, 사진, 동영상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북한과 교환하여 홈페이지 또는 잡지에 게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등에 제공하여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제3절 역사·학술 교류

2006년 북핵사태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2007년에는 남북 학술·교육·

역사·언어분야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동안 학술교육 분야는 일회성 행사가 중심이 되어왔으나 2007년에는 남북의 전문가가 함께 역사유적을 발굴하고, 남한의 강사가 북한의 학생을 교육하였으며, 학술토론회도 정례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을 남북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그 중 보존 조치가 시급한 고분에 대하여 공동 보존사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고분의 보존상태 개선은 2004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당시 유네스코가 요구한 보완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평안남도 중화군에 위치한 진파리 1·4호분 벽화에 대해 보존처리를 하고, 종합 환경측정 장비를 고분 안팎에 설치하였다. 앞으로 1년 동안 기온, 습도 등 고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공동으로 분석·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5월 18일에서 7월 13일까지 개성 만월대 서북지구 30,000㎡에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9월 3일에서 11월 16일까지 주요 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물지 2,500㎡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동의 주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수백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분단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고려 궁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발굴조사에는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였고, 남한 인력이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동 사업은 행사중심의 일시적 남북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학술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분단에 따른 우리말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4년 초 발간을 목표로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 4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되어 편찬사업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뒷받침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공동편찬회의가 4차례 개최되어 그간 남북 양측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올림말을 선정하고 어문규범단일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공동학술회의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7년 7월 5일 평양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주제로 제7차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07년 11월 16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민족어 발전의 현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



평양 민족화학학술토론회

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7년 5월 7일 평양에서 화학분야를 주제로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민족화학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당국간 합의사업인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제4차 남북실무접촉이 있었다. 동 접촉에서 남북은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대련시 여순구 여순감옥 뒷산으로 특정하고 남북공동 유해발굴 실시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유해발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여 유해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는 중국 단둥에 위치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된 것으로, 2007년에는 ‘3D 그래픽스’, ‘인베디드’ 등 2개 과정에 각 30명씩 총 60명의 북한 전문인력을 교육하였다. 교육생들은 북한 내 관련학과 대학생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었다.

2001년에 시작된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사업과 2006년에 시작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종합대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되었다. 남한은 김일성종합대 과학도서관에 도서관리시스템, 전자도서 제작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북한은 디지털화한 소장자료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남한에 제공하게 된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은 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개 동의 건물이 완공된 가운데 2008년 4월 대학원 과정을 개교할 예정이다.

제4절 체육교류

2007년 체육분야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교류가 추진되었다. 특히 북한 청소년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하여 한 달간 전지훈련을 하는 등 축구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5~17세의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에서 8월에 열리는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 대비하는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 축구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 달 동안 장기체류 하면서 전지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15세 이하 청소년팀 34명이 2007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청소년팀 22명이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강진 등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남한의 중등연맹 등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한편 남한의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은 2007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22명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러한 축구팀 상호 교환방문은 남한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체육단이 합의한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에서 비롯되었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남북왕래 형식으로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간차원의 축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진행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 북한대표팀도 참가하였다. 북한대표팀 31명은 8월 7

일 입국하여 전남 광양에서 전지 훈련을 하면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를 준비하였다.

10월 19일에는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체육관에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남북권투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여섯 번째 실시된 대회로서, 남자 아마추어 2경기 및 여자프로 5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남북대결은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및 여자 프로경기 2경기로 진행되었다.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4월 6일부터 9일까지 방한하여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과,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불량배로부터 여성 구하기와 같은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체육교류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2008 베이징올림픽 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6일 남북 총리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로 남북은 12월 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응원단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겸 국제친선 축구대회 개최식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참가 북한대표단 훈련모습



제6차 남북권투대회

제5절 종교교류

2007년 남북 종교분야는 기존 종교시설 복원사업들이 추진된 가운데 남북 종교인들간의 개별접촉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위한 종교단체 연합기구간의 연대와 교류협력을 모색하였다. 또한 종교분야 왕래인원이 2007년 한 해에만 4,899명에 달해 2006년까지 종교분야 왕래 인원수인 3,376명보다 45%가 증가하였다.

2007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7대 종단 연합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이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의 초청으로 양 단체간 교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공식 방문하였다. 7대 종단 대표 41명으로 구성된 KCRP 방북단은 북한 내 각 종단 시설을 방문하고, 북한 종교인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양 단체는 그 동안 개별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부정기적인 교류사업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민간교류차원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합기구간의 연대와 함께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방북도 이어졌다. 여의도 순복음선교회 조용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맹 이용규 회장, 한국기독교교회연합 권오성 총무,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한국유교학회 최근덕 회장 등이 종단차원의 개별행사 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남한 대표단 평양 방문

는 연합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불교계의 교류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과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4년부터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추진되어 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 3년 반 만인 2007년 10월 13일 준공되었다. 이 날 남한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370여 명이, 북한측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 유영선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성 법회가 개최되었다.

신계사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범기암 등 10여 개의 암자를 둔 큰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 때 전소된 후 방치되어 오다가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복원이 논의되어 2004년 4월 남북 공동으로 복원공사가 착공되었다. 2004년에 1단계 사업으로 발굴조사 및 대응전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2005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묘사채, 묘사채, 산신각 등에 대한 전각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나한전, 칠성각, 극락전 등을 복원하였고, 2007년에는 묘사채 및 주변 건물에 대한 단청작업이 진행되어 완공을 보게 되었다.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북한은 문화보존지도국, 조선역사중앙박물관 등 해당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을 기념하여 불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지순례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8일



금강산 신계사 남북 합동 준공식



복원된 개성 영통사



완공된 평양 봉수교회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11월 14일 대각국사 열반 다례재 등 8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불교신자들이 개성 영통사를 방문하였다.

영통사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년 고찰로 개성시 외곽인 개풍군 오관산(五冠山)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16세기에 소실되었다가 2005년 10월 복원되었다. 천태종은 기와 및 단청재료, 건축 마감재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2007년에도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에 착수하였다.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은 기독교 예장통합 남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기쁜소식과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함께 2005년 9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에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준공식을 기념하여 2007년 12월 21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한 교인 31명과 북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봉수교회는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연건평 600여 평 규모로, 교회 건축과정에서 남한의 물자가 지원되고 기술진이 빈번

히 방북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였다. 남북의 기술자 및 기능인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남한 교인들이 방북하여 합동예배를 가졌다.

여의도 순복음선교회는 2007년 9월 5일 평양에 심장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하고, 12월 4일 조용기 목사를 비롯하여 남한 교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예배와 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이다.

그 밖에 감리교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 온 평양신학원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천주교에서는 평양 장충성당에 주일학교 건립을 지원하였다. 주일학교 건립은 조선카톨릭협회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축을 담당하고, 남한은 자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제6절 지방자치단체 교류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제천시)에서 23건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총 160억원이 투자되었다. 이 중 부산시의 평양항생제공장 건립, 울산시의 북한 영유아 이유식시설 건설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에 부산, 전북, 경북, 제주 및 충북 제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대전, 충북,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사업의 재원 마

련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남, 경남 등이 자체적으로 남북협력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도는 2008년 기금설립을 목표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출연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남북교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제1차 회의는 7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금강산-제천시 사과수확축제와 연계하여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 사회문화협력사업

시도별	사업실적	사업비 (백만원)	협력단체
인천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 인조잔디 8,362㎡, 육상주로 8,206㎡, 포설장비 차량 1대, 관람석 페인트 1식	699	평화3000
강원	○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 - 솔잎혹파리 방제(금강산지역) 1,500ha -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북강원도전역) 1,000ha	323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삼지연 빙상장 보수자재 지원 - 아이스링크 시스템 제공 및 설치	895	
	○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 - 북한태권도시범단 48명 방문, 시범경기(4.7 춘천)	2	
충북 제천	○ 복고성군(삼일포) 과수원 조성 - 비배관리 및 기술협력 : 6ha, 11회 65명 방북 - 금강산 제천사과축제 개최(9.6-15) - 삼일포 농장 태양광 전력시설 구축 등	303	제천시남북협력협회

□ 지원협력사업

시도별	사업실적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서울	○ 평양 「조선암센터」 의료장비 지원 - 수술 기구 및 인공호흡기 등	500	장미회
	○ 수해 구호물자 지원 - 항생제, 방역품 등 45종 의료품 및 생수	300	장미회
부산	○ 평양 항생제공장 건설 - 김일성종합대 생명공학센터내 1,200㎡ 규모 * 월 80만 캡슐 항생제 생산	75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수해물자 지원 - 의약품, 식료품, 수해복구 자재 등	120	
광주	○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 - 시멘트 912톤, 강재 112톤	170	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울산	○ 북녘 옥수수 국수공장 지원 - 옥수수 국수 기계 설비 1식	47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건립 지원 - 공장건설, 생산설비, 원자재 지원 등 * 2007년 12월 현재 70%의 공정률	919	남북나눔공동체
경기	○ 개성 산림녹화사업 - 온실 양묘장 설치자재(3동 330㎡), 종자, 트랙터 등 농기자재	36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 벼농사 협력사업 200ha - 농업기반조성: 도정공장, 도로포장 등 - 생활환경조성사업: 진료소·탁아소 신축 등	1,860	
	○ 수해 구호물자 지원 - 라면, 밀가루 등	100	
강원	○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 - 공장 250평 규모 건립, 생산기계 설치	741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 지원 - 주택복구용 판유리 지원 1만㎡	60	
전북	○ 양돈장 지원사업(남포시 대대리) - 축사 5동(1,465㎡), 종돈 267두, 사료 220톤	1,1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남	○ 평양 발효 콩 공장 건립(일 16,000명 공급 규모) - 발효 콩 공장 건설자재 지원 및 기술공유	880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경북	○ 개성지역 「경북 사과원」 조성 - 북한 파트너 선정(민경련) 등 사업 추진 준비		경북남북농업교류협의회
경남	○ 농업교류협력사업(강남군 장교리 협동조합) - 공동 벼농사 200ha, 통일딸기 모종생산 25,000주 - 콤바인 등 9종 23대 등	1,100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 2층 연면적 1,920㎡ 규모(교실 10실 등)	1,393	
제주	○ 감귤 북한보내기 - 감귤 8,260톤, 당근 4,100톤	3,000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